

[바둑]



<백흥석 5단>

<윤준상 4단>

<조경호 초단>

‘반상’ 신예 돌풍 무섭네!

신예 기사들의 결과가 예상치 않다. 지난 8일 개막한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에서 조훈현 9단과 유창혁 9단이 신예들의 '칼'에 맞아 황사한 데 이어 원익배에서도 백전노장들이 신예돌풍에 쓰러졌다. 신예돌풍의 주역은 광주 출신 조경호(18) 초단. 그는 강원랜드배 명인전 1차전에서 '바둑황제' 조훈현(54) 9단을 불계로 따돌리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무려 12차례나 명인위에 올랐던 조훈현은 조 초단의 예봉을 피하지 못하고 1회전에서 명인전 출사표를 접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다. 조경호는 입단 전 아마추어 자격으로 삼성화재배 통합 예선전에 출전, 중국의 천원 타이틀 보유자였던 황이중에게 승리하는 등 준비반 '복병'이었다. 손근기 2단도 같은 대회에서 유창혁(41) 9단을 침몰시켰다. 유 9단은 입단 4년 차인 손근기를 상대로 중반까지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었으나 형세를 나관하다가 역전패를 당했다. 명인전 1회전은 이처럼 신예돌풍의 진원지가 됐다. 조경호, 손근기를 비롯 초단 5명 가운데 4명이 승리, 새내기들의 잔치가 된 것이다. 2회째 대회가 열리고 있는 원익배 십단전에서도 신예들의 사자후(獅子吼)가 울려 퍼

광주출신 복병 조경호 초단 '바둑황제' 조훈현에 불계승 유창혁·박영훈 등도 희생양

지고 있다. 광주 출신 백흥석 5단은 지난 3일 전남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8강에 올라던 박영훈 9단을 거꾸러뜨렸다. 그는 120수 만에 박 9단을 호쾌한 백 불계로 제압하는 신예답지 않은 전력을 과시했다. 백 5단은 구랍 18일 열린 같은 대회 본선 3회전에서 목진석 9단을 155수 만에 흑불계로 제압하고 본선 4회전에 진출한 바 있다. 그는 준결승전에서 최철한 9단과 격돌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도 윤준상 4단은 국내 간판대회인 명인전 제1국에서 '지존' 이창호를 173수 끝에 흑불계로 일축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창호는 지난해 박정상(전자랜드배), 이영구(왕위전) 등 신예들의 당찬 도전을 노련함으로 막아냈으나 뜻하지 않는 선제공격으로 내상을 입었다. 기선을 잡은 윤준상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발'이 성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수전 본선 토너먼트가 시작됐을 때 윤준상이 박정상, 이희성, 박영훈을 연파하고 도전권을 따내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진출한 윤준상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태극낭자군 반격 나서나

초반 부진...박지은 등 3명만 남아 13일~18일 정관장배 2라운드

제5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제2차전이 13일(제5국)부터 18일(제10국)까지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1차전 최종국(제4국)에서 김혜민 4단이 일본의 만나미 카나 3단에 패함에 따라 2라운드는 만나미 3단과 중국 제4장의 대국으로 시작된다. 현재 한국은 박지은 6단, 이민진 5단, 현

미진 4단 등 3명이 남아 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중국의 예규이 5단, 리춘화 4단, 정연 2단, 왕상원 초단 등 4명이 잔류하고 있다. 일본은 만나미 카나를 비롯 고니시카즈코 8단, 야시로쿠미코 5단, 가토케이오 5단 등이 포진하고 있다. 이 대회는 한·중·일 각국 선수 5명이 연승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덤 6집 반이 적용되며 각자 제한시간 1시간(초읽기 40초 3회)의 속기대전이다. 우승상금은 7500만원이며, 매 대국당 150만원의 대국료가 지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정화 초단 '장래 유망 신예기사' 1위 선정

실리·수읽기 능숙한 '바둑계 위성미'

사이버으로 프로그사 106명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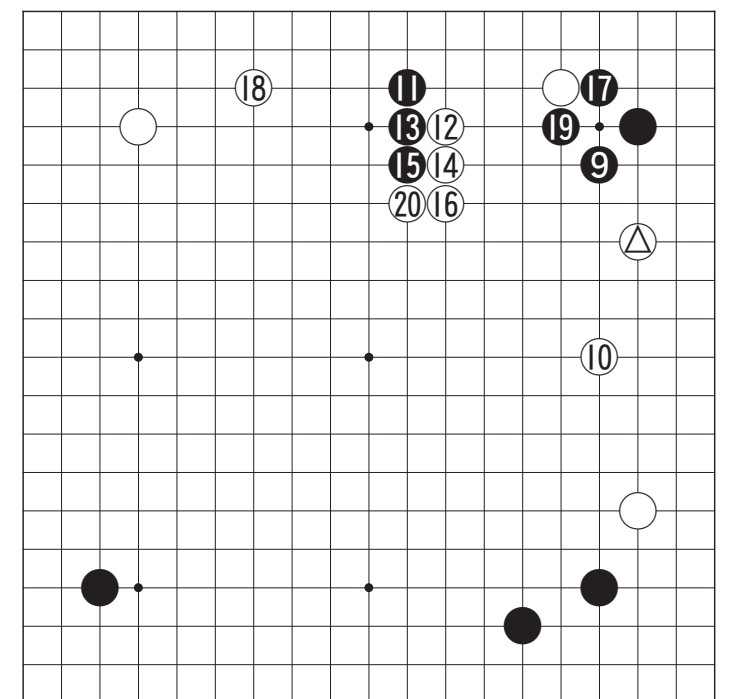


입단 만 7개월인 박정화(14·총암중 3) 초단이 '이창호-이세돌'의 뒤를 이을 차세대 스타로 뿔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둑포털사이트인 사이버으로(www.cy-

beroro.com)는 12일 "프로그사 106명을 대상으로 '장래 유망한 신예기사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박 초단이 1순위(23%)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 초단은 광주 토박이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있다. 지난해 5월에 입단한 그를 프로그사들이 주저없이 차세대 1인자로 꼽는 이유가 무엇일까? 프로그사들은 우선 나이가 어리다는 것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있다. 박 초단은 지난해 13살의 나이에 프로 관문을 통과했다. 나이가 담보하고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박정화는 골프계의 미셀 위와 비교되고 한다. 박 초단을 지도해온 권갑룡 7단은 박 초단이 수읽기에 강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수읽기가 아주 셉니다. 실리를 차지하다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기풍은 이제들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는 지난해 조훈현, 유창혁, 김성룡, 김영삼 등 바둑 전문가 10명이 뽑은 '10대 유망기사 베스트 3'에서도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4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비형과 공격형 2보(9~20)

白 흥석의 6단 <목포시> 黑 김종민 6단 <해남군>



나이로 열 세살 차이가 나는 두 기사는 기풍도 큰 차이가 있다. 고참 김종민 6단이 지키는 바둑이라면 헬 학생 흥석의 6단은 이기는 바둑 스타일이다. 즉 수비와 공격인데 이같은 기풍이 포석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백 ㉞가 적극적으로 수법으로 10으로 발라서 우변을 키운다는 것이 흥 6단의 구상이다. 그런가 하면 김 6단은 11로 느슨하게 협공하여 지구전을 피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Advertisement for Megabox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movi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yun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imbong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naegong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Eaplus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yundai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